

“워치·삼성헬스 통해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 EU CoC 서명

삼성전자 미디어 브리핑

러닝기능 기반 헬스케어 사업 확대 의료기관 진료기록 연동 방안 준비 차세대 갤럭시 워치 기능 고도화

“러닝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면서 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준일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 상무는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워치·삼성 헬스 활용 러닝 기능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러닝을 종합적인 건강관리의 한 축으로 보고, 러닝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수면 관리와 식단 관리, 심장 건강, 마음 건강까지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다.



최준일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 상무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워치·삼성 헬스 활용 러닝 기능 미디어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삼성 헬스는 식단·운동·수면·복약 등 일상 건강 데이터를 기록·추적하고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수면·운동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하는 종합 건강 플랫폼이다. 특히 ‘러닝

코치’ 서비스를 통해 개인 맞춤형 러닝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러닝 코치는 삼성 헬스가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기능으로, 개인의 체력 수준에 최적화된 페이스를 제시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러닝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현장에는 권은주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삼성 헬스의 러닝 코치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권 감독은 “실시간 음성 가이드로 오버 페이스를 방지하고 바쁜 일상 속 러너에게 알맞은 스케줄을 제공해 개인에 최적화된 러닝 파트너가 되어준다”고 설명했다.

향후 헬스케어 사업 확대 계획도 언급했다. 최 상무는 “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제공 중인 ‘건강 기록 보기’ 기능을 통해 건강검진 기록과 혈압 변화 등 개인 건강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추후에 의료기관 진료 기록까지 연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

혔다. 올여름 차세대 갤럭시 워치 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러닝 기능 고도화 역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상무는 “현재 삼성헬스의 러닝 기능을 고도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능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검증 기준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6월 이후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러닝 코치’ 기능을 넘어 다양한 운동 종목으로 코칭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상무는 “현재 글로벌 러닝 열풍에 맞춰 러닝 기능 고도화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며 “갤럭시 워치에서는 100가지가 넘는 운동 종목을 선택할 수 있고, 코칭 프로그램 역시 러닝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한화그룹, 美 필리조선소 정상화 ‘구슬땀’

선박인도 일정 지연 등 성장통 韓 기술력·생산관리 노하우 이식

한화그룹이 미국 조선업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성장통을 겪고 있다. 주요 선박 인도 일정이 잇따라 밀리고 영업손실이 이어지면서 인수 전부터 누적된 생산·공급망 체계의 구조적 부담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건조 중인 맷슨사의 ‘알로하급’ 컨테이너선 3척의 인도 시점이 당초 2026~2027년에서 최대 2028년 2분기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선 ‘미쿠아’호를 비롯한 후속 호선 일정이 6개월에서 1년가량 뒤로 밀린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10억달러 규모의 3200~3600TEU급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건조 사업이다.

납기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박(NSMV) 3호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도 당초 지난해 6월 완공, 같은 해 말 인도가 목표였으나 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로조선소 4번독(도크)에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한화오션

정이 밀렸다. 지난해 8월 진수 이후 시험 운항 과정에서 추진 계통 결함이 발생하면서 같은 해 9월 드라이도크에 재투입됐고, 꼬리축과 선미관 베어링 등을 분해·점검한 뒤 수리 작업을 거쳐 올해 3월에야 인도됐다.

윤현규 국립중앙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잡은 인도 지연은 숙련 인력 부족과 건조 공정·공급망 운영 체계가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납기 준수는 조선업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라고 지적했다.

실적 지표도 여전히 적자 늪에 빠져

있다. 한화시스템(지분 60%)과 한화오션(지분 40%)이 총 1억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연결 자회사 편입 이후 두 기업의 수익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292억원, 3분기 3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는 과거 누락 원가 반영과 매입가격변분(PPA) 상각비 약 310억원이 반영되며 손실 규모가 879억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1분기에도 46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회사 측은 폭설 등 기상 악화를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업계에서는 인수 전

부터 고착화된 손실 구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조선업 특성상 기자재 공급망과 숙련 인력 등 산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만큼, 인수 1년 반 만에 정상화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화는 한국 사업장의 기술력과 생산관리 노하우를 이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수 이후 2억달러 이상의 설비 투자와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인력 재교육 등을 추진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저수익 호선 인도가 집중된 2~3분기를 기점으로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수익성이 높은 선종 비중이 확대되며 실적 개선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한화는 최근 한화디펜스USA를 통해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사업을 수주했으며,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MASGA’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소 정상화는 단순한 설비 개선이 아니라 생태계 복원 사업”이라며 “한국식 생산관리 시스템 이식 속도와 숙련 인력 확보가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com

LG전자, LED 사이니지 등 상업용 디스플레이 경쟁력 입증

프랑크푸르트 공항 제품공급 완료 화재 안전기준 충족 등 안전성 발공

LG전자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신청사에 대형 LED 사이니지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주요 공항에서 상업용 디스플레이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안정성과 내구성을 앞세운 맞춤형 솔루션으로 공항·교통 인프라 중심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지난 4월말 개항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3터미널에 대형 LED 사이니지 등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공급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가 공급한 총 115m² 크기의 대형 LED 사이니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3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마켓 플레이스’에서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LG전자가 이번에 공급한 LED 사이니지는 공장 등 안전이 중요한 곳에서 주로 쓰이는 부품을 적용하고, 화재 발생시 확산을 늦추도록 설계돼 별도의 추가 시공 없이 완성도 높은 안전성을 구

현한 점이 특징이다. 유럽의 전기·전자 장비 화재 안전 기준인 ‘VdS 6024’와 안전·전자파 적합성 규정인 ‘CE-LVD/EMC’도 충족한다.

또 넓은 시야각을 제공해 여행객들이 다양한 각도에서도 여러 정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높은 가시성과 뛰어난 화질로 광고 영상이나 해당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도 표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뛰어난 품질에 기반한 안정적인 운영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3터미널 중앙에 설치된 대형 LED 사이니지. /LG전자

이 가능한 점도 LG전자 상업용 디스플레이의 강점이다. LG전자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상업용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유지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엑스텔 평가 1위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투자자 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업의 체질과 경영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투자자 평가 전문 기관 엑스텔 인사이츠가 실시한 ‘2026 엑스텔 아시아 이그제큐티브 팀 서베이’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자동차·부품 섹터 69개사 중 종합 1위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조사에서 세부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는 CFO, IR 담당(CIRO), IR 프로그램, ESG, 이사회 부문에서 각 1위를 기록했다. 특히 CFO 부문에서는 경영진 승인 아래 수립·공개된 자본정책에 대해 투자자들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가 인정해준 것”이라며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업 신뢰성을 높여 갔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타이어 폭스바겐 ‘라우펜’ 공급

한국타이어는 독일 폭스바겐 신차에 ‘라우펜’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독일 완성차 브랜드 폭스바겐의 해치백 모델 ‘골프 8’ 부분변경 차량에 2세대 여름용 퍼포먼스 타이어 ‘에스 핏2’를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급 대상은 16·18인치 규격의 2세대 여름용 퍼포먼스 타이어 ‘에스 핏2’다.

에스 핏2는 고품질 실리카 컴파운드와 최적화된 트레드 설계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젖은 노면 제동거리를 약 16% 단축했으며, 4개의 직선형 그루브 설계를 통해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차세대 폴리머 컴파운드를 적용해 마일리지 성능도 기존 대비 약 15% 향상시켰다.

한국타이어는 폭스바겐그룹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OE 공급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